

# “정치검사 단죄” 4명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담당자 민주 “위법시 언제든 추가 탄핵”...대통령실 “수사권 달라하나”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2일 민주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성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김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

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 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한동훈 후원금, 순식간에 1억7000만원

### 국힘 전대 후보...8분 50초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2일 후원금 계좌를 연 뒤 9분도 안 돼 한도액을 다 채우고 1억 70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한 후보 측이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오전 9시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 50초 만에 1억5000만원 한도를 채워 모금을 마쳤다"고 말했다.

캠프에 따르면 후원자는 1792명이며,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1604명이다. 총모금액

은 1억7749만1377원으로 집계됐다.

캠프는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20% 범위 안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의 후원회장은 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하나 씨가 맡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국힘 “전남대 새병원 예타 통과 적극 협조”

#### 광주시당-건립 추진본부 간담회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전남대 새 병원 건립과 관련해 여당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일 시장 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추진본부와 간담회(사진)를 했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추진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 병원 건립 추진본부는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재군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추진본부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인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로 물리적·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환자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정책, 의대 정원 확대와 맞먹는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과감한 예산 지원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대병원이 제출한 '미래형 뉴스마트 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khn@

### ‘옥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유포·사용자 처벌

#### 문금주, 형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일 군국주의 상징물인 옥일기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옥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옥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군국주의 상징물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문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옥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명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옥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후임에 이진숙 거론

<전 대전 MBC 사장>

### 직무정지 막으려 본회의 전 자진 사퇴...이사진 공모 시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약 반년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

가 장기간 '울스름'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

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즉각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빠르게 거치면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며, 취임 후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